

鄭敦의

東萊府使接倭使圖

崔 永 禧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繪畫중에 「慶尙道東萊府使與日本諸公親密的即見圖 畫師鄭謙齋元伯寫」라는 表題의 실명문이 붙은 十幅屏風이 있다.

이 表題에서 「畫師 鄭謙齋 元伯寫」는 鄭敦의 號와 字를 말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畫題를 「慶尙道 東萊府使와 日本諸公과의 親密的 宴會即見圖」라고 붙인 것은 그림의 내용과 어긋나는 설명으로, 아마도 日政때에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 보다는 의식적으로 왜곡하여 붙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그림의 내용은 東萊府使가 倭使를 接待하는 것임으로 畫題를 「東萊府使接倭使圖」라 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畫題를 일단 이에 따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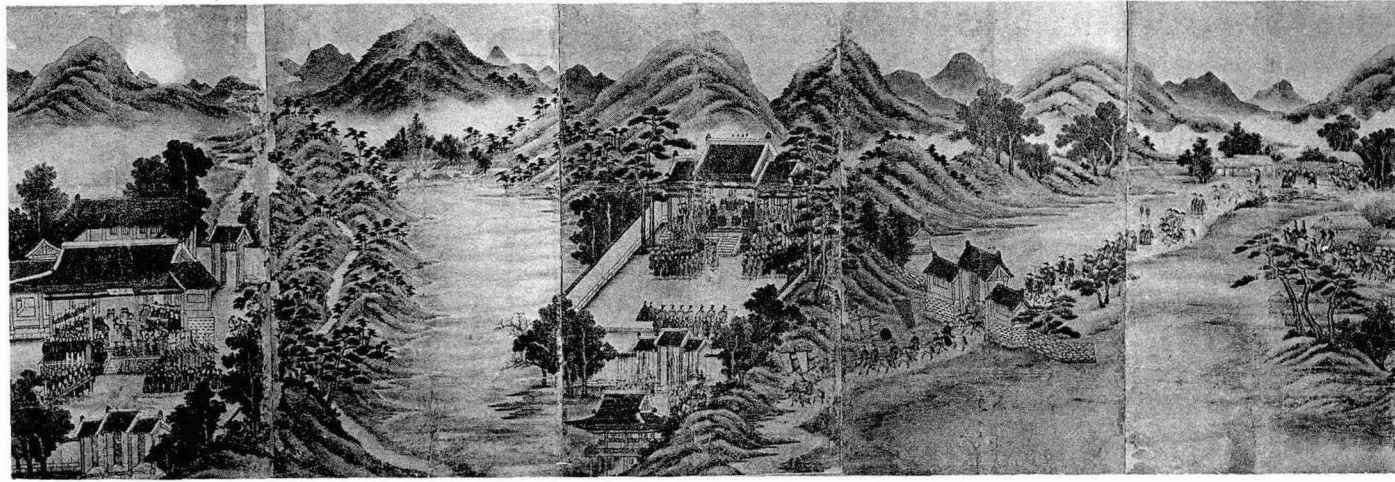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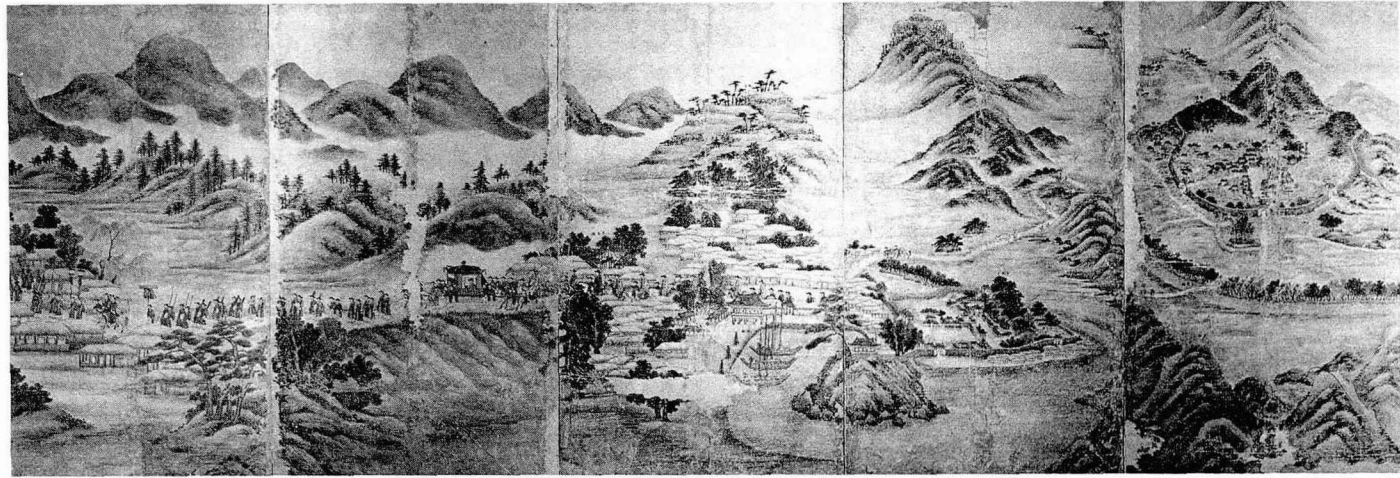
이 鄭敦의 「東萊府使接倭使圖」는 韓國繪畫史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나 朝鮮王朝末期의 對日本外交史研究에 매우 중요한 參考圖이기도 하다. 增正交隣志에 集成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 倭館의 館宇, 倭使의 肅拜나 宴享儀 등은 글로 된 서술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이 謙齋의 十幅 그림이 寫實的으로 또 具體的으로 설명해 준다. 그리고 주요 山, 邑, 建物에 이름을 써넣은 것은 큰 참고가 된다. 이 小考는 「東萊府使接倭使圖」에 대한 美術史的 考察이 아니라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歷史的 史實에 대한 考察을 주로 한 것이다.

一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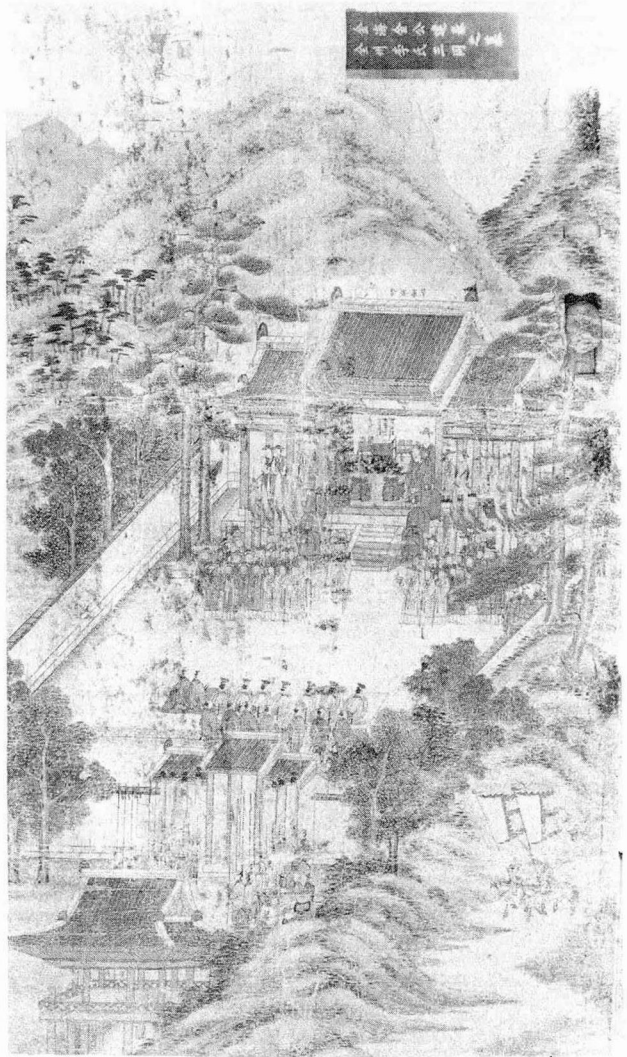
謙齋의 「東萊府使接倭使圖」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三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즉 (一) 東萊府使가 倭使를 접대하기 위하여 東萊府 南門을 나와 草梁倭館 設門까지 행차하는 行列(第一幅에서 第七幅까지) (二) 草梁 客舍에서의 倭使의 肅拜(第八幅) (三) 宴大廳의 宴享儀(第十幅)(圖一 참조)

東方 山水의 宗畫라고 일컫는 謙齋의 獨特한 山水畫中에서 위에 든 三부분의 歷史的 史實이 十幅의 그림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그림은 圖畫署員이 그린 行列圖가 흔히 圖式化한 것과는 달리 아름다운 韓國의 山川과 城廓·建物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특성을 지니고 움직이고 있다. 謙齋의 그림이 거의 그러하듯이 여기에도 畫題를 남기지 않았고 署名과 落款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그림은 朝廷의 명이나 東萊府使의 칭을 받아 謙齋가 圖畫署員이라는 公的인 身分으로서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畫員의 관습에 따라 落款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東萊府使接倭使圖」에 그려진 東萊에서 草梁倭館 宴大廳까지의 山川과 建物의 그림은 現地에서 寫生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寫實的인 일 수 는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東萊府使의 行列과 倭使接待의 현장을 목격하였는가의 여부는 곧 판단을 내리기 힘들으나 倭使의 모습과 行事的 절도등이 具體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行事들을 실지로 참관하였다고 함이 옳을 상 싶다.

이 그림을 그린 年代, 더 구체적으로 어느 해의 倭使인가를 밝히기는 힘들으나 이 그림을 그린 上限年과 下限年은 밝힐 수 있다. 그 근거는 第七幅의 設門과 第八幅의 客舍에서 찾을 수 있다. 草梁倭館은 倭人의 간청에 의하여 肅宗四年에 완성되어 豆毛浦倭館을 당시는 한적하던 草梁村 즉 지금의 釜山龍頭山을 중심으로 한 번화가로 옮겼는데, 倭館 주위에는 처음에는 木柵을 세워 경계를 삼았고 후일에 木柵을 土壁으로 바꾸고 또 다시 肅宗三十五年에는 石築牆으로 개축하였다. 倭館은 東館 西館으로 나누어졌고 門으로는 東館에 守門, 西館에



圖一、東萊府使接倭使圖



圖二 圖一의 第8幅部分圖

北門과 水門이 있었는데 北門은 宴享門이라 하여 열쇠는 東萊府에서 보관하고 宴享등 필요할 때만 開門하였으며 水門은 無常門이라고도 하여 倭人の 屍柩가 나가는 門이었다. 東館의 守門은 平常時의 出入門으로서 朝夕으로 開閉하여 倭人은 이곳을 나와 海邊에서 菜蔬、魚類、薪炭 등 生活必需品를 구하였으며 門에는 東萊府·釜山鎮에서 將校 一人 通事 二人 門直 二名이 교대로 門을 지켜 出入證을 검사하고 我國人和 倭人의 出入을 허가하였다. 이렇게 倭館들레에는 石築牆을 쌓고 守門의 警戒을 엄히 하여 倭館倭人이 허가없이 境界밖에 나오는 것을 엄금한 외에 石築牆밖에 또 六개처에 伏兵幕을 두어 倭人의 행동을 감시하였다. 그런데 후일에 東萊府使 權以鎭에 의하여 守門밖에 또 새로히 設門이

六間(增正交隣志)과 三間(東萊府志)의 두설이 있는데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倭館 客舍의 中門과 外三門이 모두 三間이므로 設門도 三間일 수도 있으나 이 設門은 倭館倭人을 단속하는 중요한 시설이며 그림에서도 보듯이 두 말(馬)이 나란히 통과하는 門이므로 設門 전체의 間數는 六間이 맞는다고 여겨진다. ③ 設門의 東北에는 牆垣을 쌓아(또는 築城이라고도 함) 東은 바다로 十餘步 西로는 山頂까지 數百步에 이르렀다. 「東萊府使接倭使圖」第七幅의 設門과 牆垣의 그림과 이에 대한 기록을 대조하면 이 그림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한가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이 그림은 設門이 完工된 肅宗三十六年(一七一〇) 이후에 그려

설치되었다. 「東萊府使接倭使圖」第七幅에 設門이 그려져 있으므로 그 建立年代는 이 그림의 上限年이 될 것이다. (增正交隣志 卷三館宇)에 設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設門六間 牆垣 東抵海十餘步 西至山頂 數百步 ○東萊將校一人通事一人門直一名 守直 初無設門 肅宗三十五年己丑 府使 權以鎭 始役

또 (東萊府志)에는

設門三間 肅宗庚寅(三十六年) 府使權以鎭 伏請新創 又築城 以禁倭人往來 撤移門 內民戶于城外 距府二十六里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① 設門이 설치된 해는 東萊府使 權以鎭의 奏請으로 肅宗 三十五년에 始役하여 다음 해에 完工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② 設門의 間數는

진 것으로 이를 上限年으로 잡는 것은 잘못이 없으리라 고 생각된다.

그런데 다음으로 第八幅에 그려진 倭館 客舍의 門이 增正交隣志의 기록과 다른데 문제가 있다. 그림중의 客舍 門은 中門이 없는데 기록에는 中門과 外三門이 있다. 이 客舍의 그림으로는 國史編纂委員會 소장인 對馬島文書中에 「朝鮮釜山浦草梁和館之圖」란 表題가 붙은 두루마리 그림에도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中門과 外三門이 있다. 이 그림은 年代未詳으로 對馬島人畫師가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謙齋가 寫實的 그림에서 客舍의 中門 三間을 빼 놓았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다. 客舍의 外三門 왼쪽에 倭使들이 굴복하고 拜禮하고 있는데 이를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中門을 생략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더우기 外三門안으로 왼쪽에서 담장이 둘러있는 것을 볼때 그렇게도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그림을 그림 때에는 客舍에 中門이 없었던가 또는 (增正交隣志)의 기록이나 「朝鮮釜山浦草梁和館之圖」의 客舍 모습과는 다른 것이 아니었는가도 생각된다. 한편 「輿地圖書 慶尙道 東萊府」에

草梁客舍 府南二十七里 倭獻進上時 捧肅拜之處 而頗近陝 乾隆戊寅重建이라는 기사로서 倭館 客舍가 협소함으로 乾隆戊寅 즉 英祖三十四年(一七五八)에 重建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東萊府使接倭使圖」의 倭館客舍는 「朝鮮釜山浦草梁和館之圖」에 그려진 客舍의 구조 넓이 위용에 비하여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물론 屏風의 一幅에 그려넣기 위한 構圖때문에 그렇게 되었을지도 몰으나 外三門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重建전의 건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다든. (圖3 참조) 이러한 추측이 옳다면은 이 그림은 客舍가 重建된 英祖三十四年 이전에 그려진 것이 된다. 英祖三十四年은 謙齋가 죽기 바로 전년으로 그의 나이 八十三歲 때이다. 謙齋는 老後에도 細線을 절을 때와 같이 그릴 수 있었으나 七十五歲에는 「仁王霽色圖」와 같은 質感을 나타내는 새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은 細線과 畫情에서 풍겨 나오는 품격으로 보아 그의 靑壯年期的 그림이 아닌가도 추측해 본다.

위의 고증이 옳다면은 이 그림이 그려진 상한년은 肅宗三十六年이고



圖三 朝鮮釜山浦草梁館之圖

下限年은 英祖三十四年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朝鮮釜山草梁和館之圖」는 英祖三十四年 이후의 그림이 된다.

이 는고의 주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됨으로 日本人 佐田白茅의 (征韓論의 舊夢談)(一九〇五年刊)중의 設門에 관한 글을 실기로 한다. 佐田는 征韓論의 主唱者였고 日本政府의 관리로서 一八七〇년에 草梁倭館으로 도래하여 設門을 보고 글을 쓴 것은데 그 회고록은 다음과 같다. 「倭館에는 嚴重한 關門을 一重으로 建築하여(守門과 設門을 말한) (倭人인) 그 關門內에 들어가 는 것을 엄히 禁하고 있었다. 倭館에서 배를 타고 海岸을 迂回하는 일도 嚴禁하였다. 그런데 二重關門에 있는 公堂(客舍)의 앞에 殿의 一字를 書하고 扁額을 만 들어 높이 걸려 있었다. 이 「殿」字는 어떤 까닭인가고 물었더니 「殿」字는 은근히 朝鮮의 國王을 가르는 것으로 어떤 때는 朝鮮人民에게 拜禮시 키고 또 對州人에게도 拜禮시킬 때도 있다고 答하였다. (이는 사실과 어긋나는 대답으로 倭館官吏인 對馬島人이 中央政府官吏에게 사신을 음폐한 말) 土人(朝鮮人)은 殿의 字拜라 하였다. …… 二重關門을 지나 關에 들어가 는 것은 嚴禁하였으나 春秋의 彼岸節에는 이를 지나 草梁項에 가는 것이 許可되었다.」(괄호안은 筆者의 註)

三

이 그림에서는 守門이 안보이나 第十幅 앞쪽 즉 南쪽 海岸에 있었고 이 守門을 통하여 海岸가 길을 돌아 設門에 이르렀다.

「東萊府使接倭使圖」第一幅에서 第七幅까지는 東萊府使가 倭使를 접 대하기 위하여 東萊府의 南門을 나와 草梁倭館에 이르는 行列圖이다. 行列의 선두인 清道旗는 第八幅 아래에 있고 後尾는 第三幅에 있으나 第二幅에 두匹의 말을 말꾼에 끌고 오는데 이는 豫備馬로 생각된다.

第一幅에서 第七幅까지는 東萊府使의 行列圖를 주제로 하였으나 東萊府에서 設門까지의 自然景觀과 城邑圖는 옛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 준다.

〔東萊府誌〕의 城池 邑城、山川 公廨 客舍 橋梁 關隘 燧燧 樓亭과 대조 할 때 그 정확성은 말할나위도 없고 마치 寫眞을 보는 듯하다. 여기에서 는 일일히 이에 언급할 수 없음으로 중요한 것만 들기로 한다. 第一幅의 鎭山인 輪山아래의 東萊府城은 「東萊府使殉節圖」(陸軍士官學校博物館 所藏)와는 비교가 안되리 만큼 세밀하며 東萊府 南門을 나와 廣濟橋를 건는다. 廣濟橋는 본래 木橋였으나 肅宗六年에 石橋로 고쳤는데 그림이 서도 石橋로 되어 있다. 第二幅에는 釜山鎭、第三幅에는 開雲鎭 豆毛鎭 과 釜山鎭의 船艙이 있다. 船艙에는 돛대가 들어 있는 渡海使臣船이 정 박중인데 이 渡海船은 朝鮮의 使臣이 日本으로 渡海할 때 사용되던 배 로 매우 사실적이다. (圖三 참조) 壬辰倭亂때 李忠武公이 釜山の 倭軍 을 擊滅한 釜山海戰의 主戰鬪는 第二、三幅의 釜山鎭 앞바다의 海岸에 서 벌어졌다.

東萊府使의 行列은 威風이 堂堂하여 긴 행렬을 이루고 府使는 第四幅 에 가마에 타고 있다. 倭使를 접대하기 위한 東萊府使의 행차의 人數와 行列에 관하여는 英祖元年頃에 對馬島主가 莫梁倭館守에게 朝鮮의 내정 을 묻는데 내한 정보제공인 「朝鮮探事」(國史編纂委員會所藏 筆寫本) 중의 「東萊府使가 大廳까지 남서어 接待하는 人數가 얼마되는나」에 대한 보 고가 가장 정확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馬 | 清道旗 | 一雙 | 同 | 蠶 | 一雙 |
| 同 | 龍大旗 | 一本 | 同 | 都訓導 | 一人 |
| 同 | 偃月刀 | 一雙 | 同 | 喇叭 | 一雙 |
| 同 | 太平簫 | 一雙 | 同 | 螺角 | 一雙 |
| 步行 | 貫耳令箭 | 一雙 | 馬 | 軍官 | 四雙 |
| 步行 | 巡視旗 | 一雙 | 同 | 三枝鎗 | 一雙 |
| 同 | 羅杖 | | 同 | 令旗 | 一雙 |
| 同 | 龍刀劍 | 一雙 | 同 | 使令 | 一雙 |
| 同 | 前頭砲手 | 一雙 | 同 | 吸唱 | 一雙 |
| 同 | 陪行官 | 十雙 | 同 | 日傘 | 陪一名 |

小童十名 駕馬後陪의 別武士六人
步行 下吏 十二名 小通事

여기서 馬上, 步行이라 함은 騎馬나 아니냐를 말하며 순서는 行列의 순서로 되어 있다. (龍頭砲手에서 小童까지의 騎馬 步行에 관한 설명이 빠져 있으나 모두 步行이다.) 이 기록과 行列圖를 대조하면 약간의 인원수와 순의 차이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거의 맞아 들어 간다. 그리고 第六幅에서 女樂妓女들이 말을 타고 가는 데 이들은 宴享儀때의 妓戲를 하는 妓女들로서 「朝鮮探事」에는 「宴享儀때는 遊女 十五, 六人 이 참가한다」로 되어 있다.

이 東萊府使의 行次는 朝鮮王朝의 日本에 대한 交隣政策에 입각하면 서도 上國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어야 되었으므로 日本에 파견되는 使臣으로서의 특수한 人員들이 없으면 通信使의 行列과 그 규모가 같았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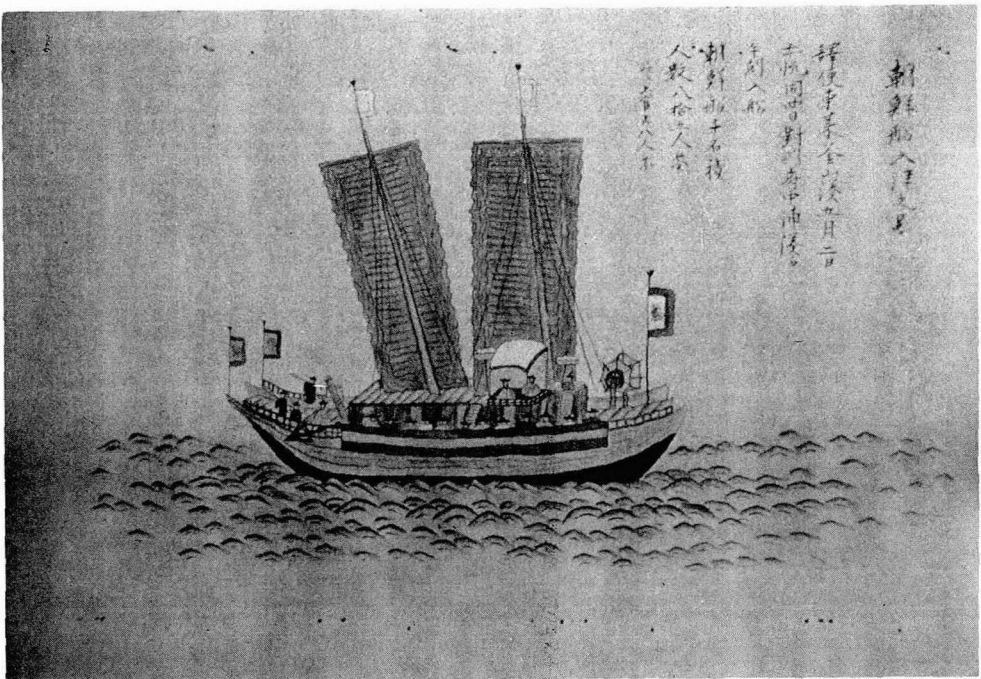
四

第八幅은 倭館客舍에서 倭使가 殿牌에 肅拜하는 장면이다.

본래 倭使는 上京하여 朝鮮國王께 拜謁하고 여러 특혜를 받아 왔기 때문에 朝鮮王朝는 경비등 많은 부담이 가중 되었다. 그러나 壬辰倭亂 후 對馬島主 宗義智가 光海君 元年 己酉 三月에 玄蘇등을 釜山에 파견하여 國交의 재개를 간청할 때 조정에서는 宣慰使 李志完을 보내어 이들 과 교섭하게 하였는데 李志完은 倭使들에게 上京을 허락하지 않고 釜山에서 國王의 殿牌를 마련하고 進香肅拜 즉 宣醞禮를 행하게 하였다. 이 해 六月에 己酉約條가 체결되어 이 행사가 例規가 되었고 이 이후 對馬島主는 그 시정을 누차 청하였으나 허가하지 않았다. 草梁倭館의 客舍는 이 행사를 위한 건물로서 倭使肅拜處 또는 殿牌所라고도 하였다.

倭使가 내도하면 먼저 問情하여 正式使臣임이 확인되면 倭使는 客舍에서 殿牌에 肅拜를 하여야 한다. 第七幅이 이 장면이다.

增正交隣志에 의하면 倭使肅拜式은 아래와 같다.



圖四 渡海使臣圖

別差導正官以下具其冠服到客舍大門外下馬 自西挾入 到西庭立 府使・僉使皆以黑團領 就堂內 東壁西向 拱手立 訓導・別差 亦以黑團領 西壁東向

立 禮房吏 開牌 燃燭上香 排列儀仗於庭之東西 紅傘於階上 小通詞分立 臚唱以倭語唱 正官以下 行四拜 禮罷 還宴廳 設下船宴

第八幅의 그림은 倭使들이 肅拜하는 장면이다. 大門 밖에는 軍卒들이 도열하고 客舍들의 東西에 儀仗이 排列한 가운데 殿牌를 모신 正廳의 堂內의 東壁에는 黑團領을 입은 東萊府使와 釜山僉使가 西向拱手하고 倭語譯官인 訓導와 別差도 黑團領을 입고 西壁에서 東向하고 있으며 禮房이 殿牌를 열고 촛불을 밝히고 香을 올리자 小通事가 倭語로 臚唱하자 倭使의 正官이하 일행이 四拜禮를 하고 있다.

본래 倭使는 客舍의 뜰에서 席地行禮하기를 數十年하였으나 仁祖十五年에 倭使가 朝鮮의 通信使는 日本에서는 堂上에서 行禮를 하는데 우리는 庭中에서 拜禮하니 같이 廳上에서 行禮하도록 청하였으나 불허하고 다만 庭中에 板을 깔고 行禮토록 하였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倭使는 板을 깔고 있다.

第九幅은 客舍와 宴大廳사이의 景光으로 訓導의 숙소인 誠信堂과 別差의 숙소인 眞日軒이 그려져 있다. (增正交隣志)에 의하면 誠信堂과 眞日軒의 건물과 크기는 다음과 같다.

誠信堂 內舍八 中行廊六 中門一 大廳九 馬廐二 行廊十 大門一

眞日軒 內舍九 行廊六 馬廐二 中門一 大門一
이 기록과 그림을 대조하여 그 당시의 誠信堂과 眞日軒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다.

第九幅은 宴大廳에서의 宴享儀의 그림이다. 倭使의 肅拜가 끝나면 그들에게 下船宴을 베풀고 다음에 信書奉呈式인 茶禮儀가 있고 떠날 때는 上船宴을 베풀어 준다. 下船宴과 上船宴을 宴享儀라 하였다. (增正交隣志)에 의하면 宴享儀는 다음과 같다.

儀如茶禮 而插花動風樂 呈妓戲 饌七味九酌訖 各於交椅前平排坐 進茶床 而通引進酒於府使前 則府使舉而送於正官 又進酒於正官 正官舉而送

於府使前 交相換飲 都船主亦如之 押物侍奉以次之 如是兩巡 釜山僉使又如之然後 倭使於府使・僉使及訓導・別差之前 各進箱饌 行酒數巡後 府使更勸一杯以致慰勲而罷 伴從等 則跪坐南行 而不給酒饌。

이 그림은 宴大廳의 東壁에 東萊府使와 釜山僉使가 앉아 있고 (앞줄) 크게 그린 두 사람) 西壁에는 倭使가 줄을 지어 앉아 있고 앞에 두 인물이 있는데 이는 正官과 都船主로 생각된다.

宴享儀는 먼저 風樂을 울리며 妓戲를 베풀고 의자에 앉아 안주 七味에 酒九酌이 끝나면 의자앞에 平坐하여 茶床이 나와 다시 進酒하게 된다.

이 그림은 宴享儀가 시작되어 風樂이 울리고 妓戲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宴享儀에서는 본래 小童이 춤을 췄으나 光海君四年에 倭使가 小童舞를 妓戲로 바꾸어 줄 것을 졸라대어 妓戲를 베풀어 주게 되었다. 宴享儀는 나라에 有故가 있을 때에는 중지되었다.

宴享儀중 上船宴때는 饌七味酒九酌이 끝난후 平坐가 없는 것이 下船宴과 구별되나 이 그림으로는 그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東萊府使接倭使圖」의 전체의 구도가 東萊府使가 草梁倭館에 이르러 肅拜의 禮를 마친뒤의 일이므로 下船宴으로 보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한다.

五

鄭謙齋의 「東萊府使倭接使圖」는 肅宗・英祖朝의 東萊에서 草梁倭館의 宴大廳에 이르기까지의 모습과 倭館중의 建物을 정확하게 진하여 준다. 그 뿐 아니라 倭使를 接待하는 여러 절차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 당시의 風俗 衣裳 旌旗등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 그리고 壬辰倭亂 후의 對日外交의 斷面을 보여 주는 데 가장 뜻이 깊다고 하겠다. (이 글은 筆者가 평소 尊敬하는 畏兄 崔淳雨國立博物館長의 華甲을 祝賀하는 論文集에 빠질 수 없어 기고 하였으나 워낙 美術史에 조예가 없어 잘못된 점이 있으면 崔館長의 是正이 있을 것을 믿는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